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회적가치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가능성¹⁾

강형구²⁾·천경훈³⁾·문정빈⁴⁾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특히 사회적 가치의 과학적인 함의에 기초한 거래를 위하여 사회적가치거래소(SOVEX: Social Value Exchange)의 설립과 운영 가능성을 고찰한다. SOVEX는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와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SOVEX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참여자들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간 직접거래(peer to peer)를 지원한다. SOVEX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주요 거래기록을 저장하고 암호자산을 이용한 탈중앙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적디파이(Social DeFi)라고 볼 수 있다. SOVEX에서 발행하는 암호자산은 생태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가치에 연동되게 디자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생태계 발전의 외부효과가 이해관계자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에 연관되어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SOVEX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비시장역량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모호한 관련 법률 해석과 개정,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SOVEX를 통하여 블록체인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동의 성공을 이루어 낸다면 이는 다시 국내의 블록체인 경제 활동에도 정당성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업계와 규제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 혁신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사회적가치, 블록체인, 거래소, 플랫폼

* 논문투고일: 2020년 6월 21일 논문수정완료일: 2020년 7월 25일 논문게재확정일: 2020년 7월 26일

1) 본 연구는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2019년 사회적가치연구공모전 대상 수상작을 발전시킨 연구임.

2)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hyoungkang@hanyang.ac.kr, 제1저자

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hchun@snu.ac.kr, 공동저자

4)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onjmoon@korea.ac.kr, 교신저자

I. 서론

현대사회는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 등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창조를 통한 사회 혁신이 필요하다(김재구 등, 2018; 김정원·양동훈, 2020; 이민재·정진섭, 2014; 이호재·황예슬·장영균, 2018; 최태원, 2014). 사회적가치란 공동체에 이익이 되지만 그 생산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불확실한 가치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공재의 공급, 부정적 외부성 생산의 감소 및 긍정적 외부성 생산의 증가, 칸트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인권의 증진, 그리고 롤스적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 향상 등의 방식을 통해 생산될 수 있다(Frederiksen & Nielsen, 2013). 따라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가치가 생산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회적가치들 간의 비교평가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적가치의 경우에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자원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가치의 경우 가격에 해당하는 지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Mulgan, 2010).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가치의 창조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하나의 방법은 사회적가치 관리를 위임받은 공신력 있는 기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자원의 배분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는 정부가 주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사회적가치가 교환되는 시장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에 집중하여 사회적가치를 창조하는 각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생산된 재화, 데이터, 투자기회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가치 거래소 설립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이유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Deloitte 조사에 의하면 미국 경영진의 60% 이상이 블록체인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이중 40%이상이 블록체인이 자신들의 사업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배중훈·박경민·최영록, 2019; Deloitte, 2017). Gupta(2017)에 의하면 블록체인은 매우 각광받는 기술 중의 하나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암호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는 별개로 업계와 규제기관 모두 블록체인 산업을 양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 때문이다. 사회적가치 거래소는 일종의 시장인데 시장은 대표적인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자원배분 시스템이다. 블록체인의 아이디어도 탈중앙화인데 이는 최초의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된 화폐인 비트코인에서도(Nakamoto, 2008)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은 미들맨(중개자; middleman)을 제거하고 개인간 직접 네트워크(peer-to-peer network)를 형성하여 직접적인 거래(direct transaction)를 지원하고 각종 비용의 절감을 추구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형이 생겨나고 있다(Dutra, Tumasjan, & Welpe, 2018). 이러한 특성은 거래소 디자인에도 직접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전통적인 거래소들도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미 실험적인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Australian Stock Exchange(ASX)는 2016년에 청산결제시스템의 일부인 CHES(Clearing House Electronic Sub-Register System)를 블록체인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Hong Kong Exchange and Clearing(HKEX)의 경우 상하이 거래소나 센젠 거래소와의 교차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 시도하고 있고, 관련 작업을 Digital Asset, BNP Pariba와 진행 중이다. Singapore Exchange(SGX) 역시 금융당국과 함께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⁵⁾

셋째, 블록체인을 탄생시킨 철학적 기반이 사회적가치에 부합한다. 블록체인 실무자들은 블록체인이야말로 진정한 공유경제이고 에어비엔비, 업워크, 우버, 페이스북 등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블록체인의 경우 데이터 수준에서도 peer-to-peer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후자는 참여자들이 중앙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래도 중앙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거래관련 수수료도 중앙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실무자들에게 공유경제의 핵심은 데이터 저장을 탈중앙화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Tapscott & Tapscott, 2016a, 2016b). 한 가지 예로 OpenBazaar가 있는데, OpenBazaar(<https://openbazaar.org/>)는 오픈소스 기반의 탈중앙화된 전자상거래 시장이며 거래는 Peer-to-peer로 이루어지고 암호자산(특히 Bitcoin)을 교환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SOVEX의 구성 요소, 이해관계자, 유인체계, 거래 자산, 그리고 규제 이슈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헌 연구

사회혁신 프로젝트에서 신뢰성, 투명성과 개방성이 매우 중요하다(Iwu, Kapondoro, Twum-Darko, & Tengeh, 2015). 블록체인은 비대칭암호화 기술,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은 투명성, 불변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향상시켜 사회혁신 프로젝트에서 점차 많이 활용되고 있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사회혁신센터는 2017년 193개 조직과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새로 출범한 기관, 조직, 프로젝트 중 34%만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 단계에 있거나 블록체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많았다. 그러나 2019년에는 55%가 블록체인 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Galen et al., 2018).

대부분 블록체인에서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한 전자 서명을 통하여 거래를 완료하는데 공개키는 은행 계좌번호와 유사한 개념이고 개인키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문서에

5) <https://securities.bnpparibas.com/insights/stock-exchanges-blockchain.html>

하는 서명과 비슷하다.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 주소가 있어서 여기에 송금을 하거나 하는데 이 주소가 공개키의 해시값(hash value)이다. 개인키를 이용하여 공개키를 만들고 공개키로 비트코인 주소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신뢰성, 투명성, 개방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Aggarwal, 2017; Hsieh, 2018; Zambrano, Seward, & Sayo, 2017). 기존 시스템이 중개자 등 제 3자의 권위 등에 기반하여 신뢰를 생성하는데 반하여 블록체인은 사람이나 조직간에 대하여 신뢰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trustless system). 그대신 코드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으로 사람간의 신뢰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Werbach, 2018).

이러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블록체인은 거래상대방의 신용 위험을 줄이면서, 글로벌 사회혁신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패한 중개인이나 불안정한 채널의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나 아예 개인의 신원 증명 등에 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운용하는데도 해당 기술은 매우 유용하다.

이와 관련 또다른 블록체인의 장점은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혁신 프로젝트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의 흐름 및 자금 사용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의 허가 없이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도 없다. 이를 불변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의사결정, 자산의 소유권 등록 등과 같은 부분에서 중요하게 응용되고 있다(Lee, Kim, & Jeong, 2018).

블록체인 기술의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기부금 관리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NPO (nonprofit organizations)가 실제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NPO는 다른 국가에 기부금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기부금에 대한 비싼 수수료 및 기부금 전송 지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 전달이 어려운 재난 현장이나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 등에 대한 국제 원조 프로그램에서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는데도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다(Jayasinghe, Cobourne, Markantonakis, Akram, & Mayes, 2017; Poorterman, 2017; Shin, Kang, & Ba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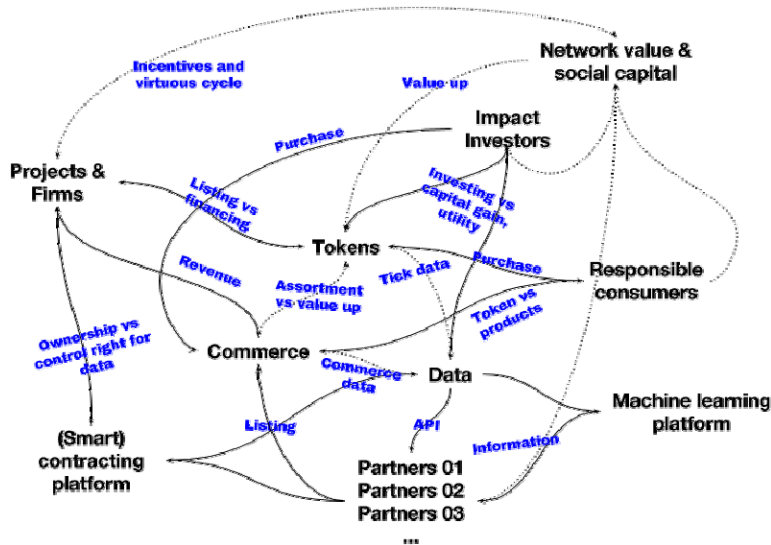
한편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코인이나 토큰 등 가상자산도 사회혁신에 사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사회혁신 활동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련 거래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Davies, 2015; Scott, 2016).

III. SOVEX 구성 요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SOVEX는 블록체인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른다. 블록체인은 핵심 기능들(core functionalities)을 공급하기 위하여 두개의 하위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블록

체인 기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 대체로 패브릭층(fabric layer)과 탈중앙화앱층(decentralized application layer: dapp layer)라고 불린다(Glaser, 2017). 각각은 암호경제(cryptoeconomy)에서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역할을 한다. 패브릭층에서는 peer-to-peer 소통, 합의구축(consensus), 데이터 관리를 담당한다. 탈중앙화앱층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이고 스마트계약은 패브릭층에서 정의된 기술특성과 기능에 의존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핵심기능들은 이상적으로는 역시 탈중앙화된 형태로 오픈소스 개발자들과 유저/외부개발자들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된다. 대체로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패브릭층에서 작업하고, 블록체인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저들과 외부개발자들은 탈중앙화앱층에서 활동한다⁶⁾. 물론 복잡한 블록체인 체계를 100% 탈중앙화된 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특정그룹이나 기관들이 패브릭층에서의 각종 활동을 선택/조율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SOVEX의 경우도 탈중앙화된 가치교환 거래시장을 디자인하더라도 이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하는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반면 SOVEX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주로 탈중앙화앱층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SOVEX 생태계 디자인



6) 이에 더하여 마이너(miners)라고 불리는 참여자들도 공개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유지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역할 혹은 공헌도에 따라 암호자산을 수령한다.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자면 SOVEX 내부에서는 상거래(commerce), 토큰 거래, 데이터 거래 등이 발생한다. 상거래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온라인 커머스과 유사하며, 상거래 활동(예: 구매나 판매) 과정에서 교환수단은 SOVEX에 상장된 다양한 토큰들이다. 토큰 간 교환비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SOVEX의 안정코인(stable coin)⁷⁾이 거래소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도록 장려한다.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는 시스템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교환비용으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Böhme, Christin, Edelman, & Moore, 2015).

여기서 (블록체인) 토큰이란 블록체인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측정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설계된 계약의 단위다.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암호자산을 발행한다. 가장 간단한 경우에는 암호자산이 토큰이 된다(예: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ethereum blockchain)의 경우 이더(ether)라는 암호자산을 발행하는데 이는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는데 비용("gas")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탈중앙화앱들은 대체로 앱의 기능에 특화된 별도의 암호자산을 발행하는데 이를 좁은 의미의 토큰이라고 한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는 토큰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스탠다드(ERC20, ERC777, ERC-1810 등)가 제시되고 생태계 내의 다양한 토큰 중 이더가 자연스럽게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토큰과 상거래는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토큰의 유동성이 증가할수록 상거래에서 교환의 매개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어 상거래를 발전시키며, 상거래의 제품다양성(assortment)이 증가하고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토큰의 가치도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토큰은 SOVEX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일종의 담보부 증권(collateralized security)이며, 따라서 담보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담보부 증권의 위험은 감소하고 활용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도 상승한다. 즉 상거래에 활용될 여지가 클수록 토큰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는 다시 생태계의 참여자를 늘리게 된다. 토큰과 상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생태계의 규모가 결정되고 결국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성공이 좌우되게 된다.

상거래와 데이터 또한 상호 보완적이다. 상거래가 활발해질수록 SOVEX에서 많은 데이터가 생산되며, 또한 역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거래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상거래가 추가적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거래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7) 안정코인(stable coin)의 가치는 다른 자산의 가치와 연동(pegged)된다. 그래서 가치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안정코인의 준거자산에는 달러, 금, 오일 등이 있다.

IV. SOVEX의 이해관계자들

SOVEX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또는 소셜벤처(이하 소셜벤처), 투자자, 소비자, 파트너사 들이다. 여기서 투자자, 소비자, 파트너사도 사회혁신에 열정이 있는 책임 있는(responsible) 이해관계자들일 가능성이 높다(예: impact investors, ethical consumers) (Cao, Gehman, & Grimes, 2017; Hinings, Logue, Zietsma, 2017; Lee, Adbi, & Singh, 2020).

소셜벤처는 토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토큰은 소셜벤처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자는 SOVEX에서 토큰을 거래하는 활동을 한다. 사회혁신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토큰을 구매하는 투자자라면 임팩트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셜벤처가 아닌 기업들도 토큰으로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혁신에 보다 쉽게 동참하게 한다. 특히 거래다양성을 증가시켜 토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들의 재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토큰을 구매하는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자자들도 간접적으로 소셜벤처에 참여하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SOVEX의 상거래에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다. SOVEX에서는 소비자와 투자자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SOVEX에서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큰을 구매(충전)해야 하는데 소비를 위해 토큰을 구매하는 행위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토큰에 투자하는 행위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적 소비자들은 사회혁신에 세 가지 방식으로 기여한다. 첫째, 소셜벤처의 투자자가 되어 이익을 공유한다. 둘째, 사회혁신 재화를 구매하여 직접적으로 소셜벤처에 기여한다. 셋째, 본인들의 상거래 활동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부 혹은 판매하여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다(Lehr & Lamb, 2018).

파트너사들은 크게 두 가지 활동 — 상거래 활동과 데이터 구매 — 에 참여한다. 첫째, 여기서 상거래 활동이란 구체적으로 파트너사들이 생산한 재화가 SOVEX 상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토큰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며, 파트너사들의 참여가 많아질수록 토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종류가 증가하므로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토큰을 결제수단으로 받는 파트너사들도 이에 따른 이득을 공유하게 된다. 파트너사들은 SOVEX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혁신 기회를 얻게 되고 동시에 토큰 가치 상승에 기여하게 되며 이는 다시 SOVEX 생태계를 발전시킨다. 파트너사들이

8) SOVEX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디폴트로 제공하여 데이터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명확하게 정의되게 하고 데이터 기부나 판매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들을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토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자명하다. 파트너사들의 토큰 수요도 가격상승 요소이며, 파트너사들의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사회적 자본이 확장되면(Koka & Prescott, 2002; Tsai, 2000) 역시 토큰의 가치가 증가한다. 사회적 자본을 관리하기 위한 SOVEX 운영기관의 리더십이 생태계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데이터나 정보의 구매는 SOVEX에서 거래되는 토큰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데이터는 API형식으로 제공되어 구매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범위는 투자자의 거래데이터, 소비자의 데이터, 소셜벤처의 상거래 데이터는 물론 SOVEX가 승인한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다. 데이터를 구매하면 토큰은 스마트계약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처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급된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마이데이터 계좌(mydata account)를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계좌에서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계약에 의해 데이터가 거래되는 즉시 수익이 토큰의 형태로 데이터 제공자의 전자지갑에 지급된다. 이러한 장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사회혁신 데이터 공유에 대한 투명성과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 파트너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는 토큰의 가치도 상승하고 이는 다시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SOVEX의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 역량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API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표준과 분석 툴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데이터 분석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장 설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데이터 생태계를 설계한다면 데이터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지고 이는 다시 데이터 거래의 수단인 토큰의 가치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V. 사회적 자본을 통한 토큰 가치 상승과 인센티브

앞서 설명했듯이 토큰들의 가치는 내재적인 특징은 물론 SOVEX를 둘러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가치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거래에서 제품다양성(assortment)의 증가는 토큰가치 상승을 가져온다. 토큰은 소셜벤처들의 파이낸싱 수단이면서 SOVEX 커머스에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듯이 담보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담보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제품다양성이 증가하면 담보부증권인 토큰의 가치도 증가하게 된다. 상거래는 파트너들과 소셜벤처들이 수행하는데, 파트너들과 소셜벤처의 수가 다양해지고(사회적 자본의 양: quantity of social capital) 그들간 연결이 복잡해지고 강해질수록(사회적 자본의 질: quality of social capital) 토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증가는 토큰 가치 증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환류된다(Tantalo & Priem, 2016). 따라서 사회적 자

본 확대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된다. 이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네트워크 효과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되고 실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네트워크의 양과 질이 증가하면서 네트워크에서 창출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다.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SOVEX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인센티브가 증가하고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잔류가능성도 커진다. 연결과 규모가 중요한 데이터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작동하고 이는 다시 데이터 사용과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이미 공유된 데이터 소스의 가치도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토큰의 가치도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SOVEX는 사회적 자본과 데이터 경제를 연결시켜 사업화하는 독특한 모형이 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재화, 토큰, 데이터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이는 SOVEX 내의 유동성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거래 매칭 상대를 찾으려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SOVEX 구성요소들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유동성 증가는 투기적 거래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SOVEX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소일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거래(arbitrage)의 확산에 따라 사회혁신에 대한 시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긍정적 효과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이슈들에 관해서는 윤리적 측면의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자본의 확대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면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심한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술의 파괴력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괴적 기술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자율규제도 중요한데 어느 것도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증가는 이해관계자들간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는 정부에 의한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체한다. 이를 통해 현재 규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관련 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규제기관 등 정부도 바라는 바이다. 관련 산업의 증가는 다시 SOVEX를 둘러싼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만든다. 요약하자면 파괴적 기술을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혁신에 먼저 도입해서 성과를 보이게 되면 사회적으로 해당기술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지고 규제 환경도 덜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파괴적 기술이 확산된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토큰의 적절한 사용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인(incentive)을 부여하여 생태계와 사회적 자본을 활성화시키는데, 이의 대표적 사례로 스팀잇(steemit)을 들 수 있다.⁹⁾ 스팀잇은 콘텐츠제공자(작가, 큐레이터 등)에게 스팀이라는 가상화폐를 제공한다. 스팀잇은 콘텐츠 생산과 보상이 투명한 생태계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한다. 어떠한 중

9) 스팀잇과 비슷한 소셜미디어 혹은 블로그 플랫폼에는 미디어(medium), 워드프레스(wordpress) 등이 있다.

양의 권력도 스팀잇에 게재된 콘텐츠에 개입할 수 없고 일단 게재된 콘텐츠는 수정될 수는 있지만 모든 수정 기록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immutable, tamper-evident technology). 스팀잇은 세가지 종류의 암호자산을 발행하는데 각각은 당좌예금, 저축예금, 현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저축예금 잔고는 스팀잇 생태계에서 일종의 평판(reputation)이 된다. 규칙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코인이 생성되면 이들은 콘텐츠 제작자와 이를 평가하는 독자들에게 지급된다. SOVEX 역시 스팀잇처럼 암호자산을 적절히 사용하여 거래비용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되, 스팀잇 같은 소셜미디어가 아닌 사회적가치가 거래, 평가, 투자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SOVEX나 스팀잇처럼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을 사용하여 유인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암호경제 디자인(Design a cryptoeconomy)’ 또는 ‘암호경제학(Cryptoeconomics)’이라고 부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암호경제학이란 블록체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들간 적절한 유인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시스템에 내재화(internalize)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암호자산을 어떻게 경제에 공급하고 배분하느냐가 암호경제 디자인의 핵심이다. 암호자산의 총공급은 공식에 따라 외생적으로 고정될 수도 있고, 경제 활동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공급에 관한 극단적인 경우가 각각 비트코인과 Circles 프로젝트(<http://joincircles.net/>)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비트코인의 총공급은 수학 공식에 의하여 향후 발행될 총량까지 모두 결정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Circles 프로젝트는 개인이 자신의 암호자산을 각각 발행하고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서 그들의 가치와 총량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므로 극단적인 자유은행제도(free banking)¹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암호경제들은 화폐금융이론과 금융공학, 재무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낙관적인 실무자들은 향후 다양한 암호자산이 발행되고 거래소 등을 통하여 암호자산들 간의 교환비용이 형성되어 최소한의 거래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들의 비전은 제3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암호경제 참여자들이 누구나 암호자산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암호자산을 통해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며, 이러한 경제활동이 측정되고 기록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탈중앙화되어 블록체인 자체의 논리에 따른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 아래 표에서는 사회적가치 거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정리하였다.

10) 비트코인 등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자유은행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블록체인과 금융이 결합된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에서는 자유은행제도와 비슷한 논의를 흔히 볼 수 있다. 자유은행제도 하에서는 은행이 자유롭게 지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각 은행이 발행하는 지표는 금 등 가치 있는 자산에 의하여 가치를 담보한다.

〈표 1〉 사회적가치 거래 측정 지표

| 지표 | 설 명 |
|---------------|--|
| 커머스 거래 규모 | (단위: 원) 사회혁신 관련 커머스 활동의 거래 규모 |
| 플랫폼 참여자수 | (단위: 개, 명/일) 평균 하루에 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숫자,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으나 플랫폼에서 지원활동(supporting activities at the SOVEX value chain)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수 |
| 데이터 량 | (단위: GB, PB 등) 개인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량. 파트너 기업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량 |
| 가상자산거래비중 | (단위: %) 현금결제에 비하여 플랫폼이 생성하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비중 |
| 잉여(surplus) | (단위: 원)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잉여 증가분 (예: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etc.) |
| 각종 네트워크 관련 지수 | 플랫폼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의 구조에 관한 지표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복잡도, 규모, 각종 중심성 지수 등 |

VI. 암호자산 거래소로서의 SOVEX

SOVEX는 암호자산 거래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암호자산 관점에서 SOVEX는 기부토큰,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기업 펀딩 등 사회혁신 관련 암호자산에 특화된 거래소가 될 수 있다. 암호자산의 기반인 블록체인은 국경에 제약받지 않으며, 따라서 SOVEX에 상장되는 프로젝트는 출범과 동시에 글로벌 프로젝트가 된다(Iansiti & Lakhani, 2017).

암호경제 중에서도 금융 관련 사업을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라고 부르기도 한다. 디파이는 넓게 이야기하면 블록체인 더하기 금융이다. 암호자산 및 소셜벤처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것은 전형적인 금융거래활동이다. 따라서 암호자산 거래소로서의 SOVEX 구축은 디파이 설계라고 볼 수 있다. 디파이는 기존 금융기관의 활동을 블록체인 암호자산과 스마트 계약으로 보완하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대체하려는 활동이다. 블록체인 기반인 디파이에서는 이론적으로 모든 거래가 P2P로 이루어져 중개를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금융기관들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P2P를 통해서 개인간 암호자산을 대출한다면 은행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예: MakerDAO). 그러나 실제로는 디파이에서도 기존 금융기관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모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헤지펀드인 Numeraire의 경우 암호자산을 이용하여 펀드의 기밀을 보호하면서도 다양한 전략을 수집하고 이를 다시 펀딩과 운용에 활용하고 있다. 페이스북 또한 리브라를 통해서 디파이 시장에 진입하고 이를 핵심 서비스인 광고와 페이스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자상거래 서비스 고도화에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디파이 실무자들이 꼽는 디파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유동성(liquidity)이다. 블록체인

암호자산을 이용한 유동성 비즈니스의 예가 Synthetix(<http://www.synthetix.io>)인데, Synthetix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된 거래소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재화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Synthetix라는 암호자산을 파생상품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다. 여기서 재화는 금, 달러는 물론 인덱스, 상장 주식 등을 포함한다. 즉 해당 재화의 소유자들에게는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여 재화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수요자)들에게는 작은 가치로 잘게 쪼개진 재화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가치를 정의하고 거래를 통해 측정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유동성의 한계 때문이므로 SOVEX는 디파이를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디파이는 복잡한 기존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흥시장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금융활동은 신뢰 등 사회적 자본과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이 갖춰져 있는 시장에서 더 활발하다. 따라서 디파이 역시 오히려 선진시장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진시장이라도 사회혁신 관련 활동에서 금융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디파이는 신흥시장이나 선진시장 모두에서 사회혁신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SOVEX의 경우도 금융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되 이를 바탕으로 신흥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사회혁신의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을 그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VII. 기타 거래상품 제안의 예

SOVEX에서는 소셜벤처를 위한 다양한 토큰, 데이터, 재화 등이 거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진은 이외에도 사회혁신의 성과를 공유하여 사회혁신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출연동대출(RCL)이나 매출공유계약(RSA)을 SOVEX 거래 상품의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계약들은 투자자에게는 회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혁신가/활동가들에게는 보험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때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하여 계약을 구현한다.

1. 매출연동대출(Revenue Contingent Loan: RCL)

사회혁신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 회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SOVEX는 그 예로 매출에 연동된 대출 혹은 투자성격을 갖는 hybrid 계약의 상장가능성을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혁신 사업에 대해 일정한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각종 행정적인 의무를 대폭 감면해주고,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제한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SOVEX에서의 거래를 장려할 수 있다.

SOVEX에서 거래되는 RCL은 사회혁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와 관련된 채권계약이다. RCL은 양(+)의 수익에만 연동되므로,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회수가 진행되지 않는다.

즉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상환하고 수익이 없으면 상환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벤처 입장에서는 RCL을 이용하면 전통 채권 계약과 비교하여 파산위험을 줄이거나 해정을 할 수 있다. RCL이 소셜벤처의 보험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투자자도 단순 기부가 아닌 성공한 소셜벤처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RCL의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책임 투자자나 정부가 대출계약 방식으로 RCL 자금을 지원하면 RCL로 파이낸싱된 자금으로 조직이나 활동가들이 사회혁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소셜벤처들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익을 창출한 소셜벤처들은 투자자에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RCL 투자자들은 이러한 계약상 권리를 SOVEX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 성과기준, 회수기간 설정, 회수비율 설정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혁신의 성과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해당 성과가 소셜벤처의 수익 또는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적절한 회수기간의 설정도 중요하다. 회수기간이 길어질 경우 책임투자자의 재투자가 늦어질 것이고 회수기간이 짧아질 경우 소셜벤처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RCL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나마 RCL과 비슷한 취업후 학자금(ICL: income contingent loan)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ICL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남수경·유승호·정의준(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전국 1,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ICL의 효과가 높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명숙(2016)의 연구와 대동소이한 결과이다. 만약 ICL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RCL 또한 사회혁신에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정지운·채창균·우석진(2017)의 연구에 의하면 ICL 계약을 체결한 학생들은 직업탐색시간이 짧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ICL은 빠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남수경·이희숙(2012)의 연구는 ICL의 수요자에 대한 연구인데, 해당 연구에 따르면 성적이 낮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일반학자금을 선호하고 이자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역선택 예측과 반대의 결과다. ICL에 역선택 문제가 있다면 RCL의 경우에도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매출공유계약(Revenue Sharing Agreement: RSA)

RSA는 학자금 계약에 사용되는 ISA(Income share agreement)를 사회혁신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용한 것이다. ISA는 인적자본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지분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펀딩 계약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학자금 형태의 투자로 볼 수 있다. ISA에서 투자자는 학자금을 투자한 후 피투자자의 소득이 창출될 경우 최소수준을 넘는 소득의 일부(고

정 비율)를 배당의 형태로 회수한다. 만약, 투자를 받은 인력에게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투자자의 복지를 고려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이러한 보험 성격이 가미된 ISA 계약으로 대출을 두려워하여 인적자본에 과소투자를 하는 학생에게도 미래에 대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ISA를 응용하여 매출공유계약 형식으로 사회혁신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그린본드(green bond)와 같은 사회혁신 사업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부족하고 담보가 있더라도 그 가치가 매우 불확실하다. 이러한 경우 전통적 채권계약은 체결이 어렵거나 거래비용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상승가능성(upside potential)이 있는 지분투자의 성격이 포함된 RSA를 채권계약과 혼합하여 최적자본구조를 구성하면 사회혁신의 경우에도 파이낸싱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원하는 정부나 재단들의 경우 사회혁신에 대한 수익 배당을 통해 다른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구축이 가능하다.

RSA는 일반적인 “엔젤투자”와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매우 혁신적인 사업에 지분 투자하고 성장에 따른 수익을 회수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RSA는 투자 후 이익공유 기간이 존재하며, 일반적인 엔젤투자와 달리 수익의 일부를 자동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RSA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설계된다.

- (1) 지분투자 발생
- (2) 계약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고정비율을 배당으로 수취
- (3) 고정된 비율을 고정된 기간동안 수취하며 이를 계약시에 확정
- (4) 최소 수익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는 경우 무배당
- (5) 최대 배당수준 설정

위 5가지 형태는 ISA에도 비슷하게 존재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인 투자와 달리 수익에 대한 나눔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고정된 비율과 최소 수준, 최대 수준이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분투자 및 엔젤투자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특히 최대수준 설정은 RSA의 특징으로 피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피투자자가 투자를 받은 후 사업의 성공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VIII. 규제이슈

1. 토큰에 대한 증권규제

일반적으로 FINMA 및 다른 국가들의 가이드라인은 utility token과 security token을

엄격히 나누고 있다. 배당, 이자 또는 수익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목적 중 하나로 하는 경우는 security token으로 구분되어 국내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증권법에 따른 증권으로 취급될 것이다. 특히 SOVEX와 같이 사모형태가 아닌 공모형태인 경우 증권의 공모 발행에 관한 여러 절차와 요건이 적용된다. 그리고 발행 후 유통 단계에서 이러한 증권형 토큰의 거래가 일어나는 거래소는, 해당 국가 법률에서 정하는 거래소에 준하는 요건과 자본 등을 준수해야 한다.

순수한 utility token으로 가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게 되므로, 소셜벤처들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서비스가 종료되면 모두 현금화하여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SOVEX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토큰은 utility token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점차 모든 국가들이 utility token을 더 엄격한 기준에서 보고 있어 토큰의 기능이 추가되고 환가성이 높아질수록 security token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utility token으로 시작해서 정책당국의 과도한 간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가치 창조 활동 참여가 곧 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기여라는 utility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순수한 utility token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일정한 시기와 범위를 정해 명시적인 허가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 증권사에서 소규모 사회적 채권을 발행해 주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security token을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장외에서 채권, 주식이 거래되었듯이 P2P로 거래가 일어나는 사회적가치 거래소를 1차적으로 오픈할 수 있다. 이 경우 블록체인으로 설계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정규 거래소의 경우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아직 한국에는 한국거래소 한 군데일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장기적 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SOVEX에 대한 기관 규제

조직형태 및 주무부처의 선택은 SOVEX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단순한 ICO 테스트 베드를 지향한다면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임의단체로 등록하여 utility token을 사용한다면 정책당국의 과도한 간섭을 피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과 같은 거래소를 지향한다면 행정안전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공익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를 확대재생산하기에 유리할 것이다. 다만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SOVEX 자체의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분배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SOVEX가 향후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라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음으로써 영리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단기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다른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만들어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거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SOVEX의 경우는 향후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시장의 확장성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암호자산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1항), 그 이외에 전자자금결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등록신청시 최소자본금 요건은 최소 ‘전자고지결제업(EBPP)’ 5억원(소규모 업자는 3억원)에서 최고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50억원이다. 만약 전자금융업내의 1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확장성이 중요하다면 자본금은 50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만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어야 하므로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전자금융업자등록 문제와 어떻게 조율할지는 추가적인 검토를 요한다.

IX. 플랫폼 오퍼레이터의 핵심 역량

90년대 말 2000년대 초는 전세계적으로 혁신적인 회사들과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시기였다. 모든 회사들이 인터넷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찾고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외국도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그 당시 대다수 국내 기업들은 속칭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을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소비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서비스이고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더 큰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대표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엑셀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구매하고 결국 윈도우와 윈도우가 구동되는 컴퓨터까지 구매한다. 그 당시 국내 통신사들의 예를 들어보면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고객들이 자신들의 통신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통신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회사들은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을 개발하였고 일부 서비스들을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내 회사들의 노력은 세계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일부 성공은 국내에 국한되었다.

흥미롭게도 진정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개별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상장’되고 ‘거래’되는 플랫폼이었다(Eisenmann, Parker & Alstyne, 2011; Zhu, & Iansiti, 2012). 큰 회사들은 물론 개별 개발자들까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에 ‘상장’하면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서비스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고 소비자들의 선호가 변하면서 킬러 애플리케이션도 변하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더 넓게는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결국 플랫폼 자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과감한 개방 정책으로 누구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상품을 상장하고 경쟁할 수 있게 하였다(Logue, D. & Grimes, 2019).

이러한 닷컴 사례는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사회혁신에 큰 가치를 창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떤 사업으로 어떤 사회혁신을 창출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혁신이 거래되고 상장되는 SOVEX와 같은 플랫폼이 사회혁신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SOVEX는 사회혁신 플랫폼이고 상장되는 소셜벤처나 상거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볼 수 있다. SOVEX는 직접 소셜벤처(애플리케이션)를 찾고 상장시키는 노력보다 플랫폼 자체를 발전시키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소셜벤처를 상장시키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실험되었고 얼마나 많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소셜벤처를 개발해서 상장했는지를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소셜벤처를 상장하려 할 때 이 소셜벤처가 성공할지 아닐지 미리 고민하는 것보다는, 소셜벤처를 일단 상장시키고 성공여부는 SOVEX 즉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개별 소셜벤처의 실패를 플랫폼 즉 SOVEX의 실패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실패는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여 권장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도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많기 때문에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성공적인 플랫폼인 것이다. 실패가 용인될 경우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시도될 것이고 이는 SOVEX를 매력적인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SOVEX는 장기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상품을 상장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SOVEX는 규범설정(rule setting)과 감시(monitoring) 그리고 거래현황을 파악하여 ‘애플리케이션/소셜벤처 개발자’들이 상장한 소셜벤처들을 성공시키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상품들이 실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와 조직을 개방하는 등 플랫폼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경쟁 거래소들을 플랫폼 경쟁자로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SOVEX 조직을 디자인하고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SOVEX가 플랫폼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과학(data science) 역량과 계약(contracting) 역량, 그리고 이해관계자 조율(stakeholder coordination) 역량이 필요조건이다. 첫째, 데이터과학 역량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하여 데이터 제공자들에게도 충분한 가치가 배분되어야 한다.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거대 IT 기업들에게 데이터 소유에 관한 논쟁이 하나의 약점이기 때문이다(강형구·전성민, 2018). 따라서 SOVEX가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역량과 함께 데이터 공유에 관한 적절한 규칙과 시장을 디자인하여 향후 글로벌 거대 IT 기업들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계약 역량이다. 앞서 설명한 데이터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SOVEX에서 창출된 가치가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잡한 계약관계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계약 활용에 대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혁신은 이해관계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추상적인 가치가 중요한 사회혁신에서는 지배구조와 이해관계자간 조화가 더욱 난해하다. 일반 기업에서는 주주간 계약이나 대출계약 등을 통해서 파이낸싱을 제공한 측이 주요 의사결정권을 확보한다. 하지만 소셜벤처, 또는 비영리조직이 돈을 많이 낸 기부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회혁신에서는 혁신가, 활동가의 자율성/신념이 펀딩을 제공한 측의 의사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지배구조와 이해관계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정립된 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백은 SOVEX의 발달 과정에서 창발적으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관계 조율 경험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X. 관련사례: 영국의 Social Value Exchange

(<http://socialvalueexchange.org/>)

SOVEX와 동일한 사업모형을 가진 프로젝트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국의 socialvalueexchange.org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달과 관련하여 사회적가치를 평가한 경매를 활용하는데 이는 SOVEX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일부와 관련된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resources라고 부르는 각종 자원의 리스트를 보여준다. 그러면 지역 프로젝트(community projects)들은 해당 리소스들에 대하여 포인트를 이용해서 청약(bidding)을 실시한다. 가장 높은 포인트로 청약한 프로젝트가 해당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리소스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제공된다. 결국 socialvalueexchange.org는 경매 시장을 이용하여 사회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기능을 한다. SOVEX 입장에서는 포인트는 토큰, 리소스는 파트너사들이나 소셜벤처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서비스, 데이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socialvalueexchange.org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직접 산정하거나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기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OVEX에는 프로젝트, 투자자, 소비자, 파트너사가 있는데, socialvalueexchange.org에는 이에 해당하는 개념도 없다. 후자는 (리소스 수요자인) 프로젝트와 (리소스 공급자인) 정부/지자체의 양자 관계에 집중한다. 따라서 SOVEX가 훨씬 더 다면/중층/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socialexchange.org 해당 경매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거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해당 기관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XI. 결 론

본 논문은 사회적가치거래소(SOVEX)의 구조와 구성 요소, 작동 방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SOVEX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될 수 있다. SOVEX 관점에서 중요한 블록체인의 장점은 분산성, 불변성,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다. 분산성은 SOVEX가 투명하게 유지되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불변성은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고,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 특성을 활용하여 중개자(intermediaries) 개입을 줄여 거래비용을 낮춘다.

SOVEX는 사회혁신을 넘어서 국내 산업적 파급효과도 클 수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부분은 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 투자자 보호와 법률체계의 문제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흔히 규제가 블록체인 산업 발달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규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규제기관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제공이다. 적절한 사회혁신 전략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규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¹¹⁾ SOVEX는 비시장영역에서의 사회혁신과 시장영역에서 블록체인 산업 발달을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통합전략의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현재까지 사회혁신에 특화된 암호자산 거래소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도적인 아이디어이다.

향후 연구는 사회적가치거래소의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세계최초의 사회적가치거래소 설립을 위한 추가 작업을 포함할 수 있다. 먼저 본 논문을 구체화한 비즈니스 모형 백서(white paper)와 기술적 요인을 논의하는 기술 문건(technical papers)을 먼저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워킹그룹(experts' group)을 결성한다. 워킹그룹에

11) SOVEX를 운영하는 기관은 비시장영역에서 선발주자로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부문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서는 프로젝트를 운영할 기관, 기술전문가/엔지니어, 그리고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계 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워킹그룹에서 비즈니스 모형 백서와 기술문건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템플릿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템플릿의 결정에 있어서는 데이터 분석과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형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관련 데이터를 API형태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포맷으로 제공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이는 곧 데이터 템플릿의 문제다. 이때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비슷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자들이 가장 적절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관련 블록체인 기술 선택에서는 독립적인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전문가 그룹의 작업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실험단계(experimental stage)로 소수의 소셜벤처를 골라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경험과 역량들이 SOVEX가 설립 운영되는 바탕이 될 것이다.

SOVEX가 성공할 경우 블록체인의 특성상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거대 플랫폼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SOVEX의 독점력이 지나칠 경우 경쟁 사회혁신 모형의 등장을 저해하고, 사회혁신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마존이라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이익은 증가했을지라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플랫폼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가 용인되고, 소비자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인 노동자나 판매자들의 잉여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Khan 2016).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진은 SOVEX가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으로 운영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기술만으로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 활용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간의 자율규제(self regulation), 행동강령(code of conducts) 등 SOVEX 윤리경영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연구들은 역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정당성 및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형구·전성민. (2018). 국내 전자상거래의 규제 및 글로벌 경쟁 이슈: 시장지배력, 데이터 주권, 아마존 효과를 중심으로. 『법경제학연구』, 15(3), 355-374.
- 김재구·배종태·문계완·이상명·박노윤·이경묵·성상현·이정현·최종인. (2018). 「기업의 미래를 여는 사회가치경영」. 클라우드나인.
- 김정원·양동훈. (2020). 공기업 사회적 책임활동 측정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 도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윤리경영연구』, 20, 99-126.
- 남수경·유승호·정의준. (20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의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0, 235-256.
- 남수경·이희숙. (2012). 학자금 대출유형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1, 77-96.
- 배종훈·박경민·최영록 (2019) 혁신의 한계: 가치 창출 혹은 가치 이전? 『전략경영연구』, 22, 1-20.
- 우명숙. (2016). 학자금지원 유형이 대학생 학습활동과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5, 233-254.
- 이민재·정진섭. (2016). 혁신기업, 테슬라 모터스의 패러독스 경영. 『전략경영연구』, 19, 1-24.
- 이호재·황예슬·장영균. (2018). CSR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연구: 인적자원의 획득, 활용, 유지/이탈의 측면에서. 『윤리경영연구』, 18, 91-117.
- 정지운·채창균·우석진. (2017). 학자금 대출이 대출자 직업탐색 기간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40, 69-87.
- 최태원. (2014).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이야기가있는집.
- Aggarwal, R. (2017). *Blockchain and financial inclusion*. Chamber of Digital Commerce and Georgetown University. <https://digitalchamber.org/assets/blockchain-and-financial-inclusion.pdf>
- Böhme, R., Christin, N., Edelman, B., & Moore, T. (2015). Bitcoin: Economics, technology, and governan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2), 213-238.
- Cao, K., Gehman, J., & Grimes, M. G. (2017). Standing out and fitting in: Charting the emergence of Certified B Corporations by industry and region. Hybrid ventures: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o blended value entrepreneurship.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19, 1-38.
- Davies, R. (2015). *Giving unchained: Philanthropy and the blockchain*. Charities Aid Foundation. <https://www.cafonline.org/docs/default-source/about-us-publications/givingunchained-philanthropy-and-the-blockchain.pdf>
- Deloitte. (2017). Deloitte survey: Blockchain reaches beyond financial services with some industries moving faster. <https://www2.deloitte.com/hr/en/pages/press/articles/blockchain-2017.html>
- Dutra, A., Tumasjan, A., & Welpe, I. M. (2018). Blockchain is changing how media and entertainment companies compete. *MIT Sloan Management Review*, 59(1), 39-45.
- Eisenmann, T., Parker, G., & Van Alstyne, M. (2011). Platform envelop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2(12), 1270-1285.
- Frederiksen, C. S., & Nielsen, M. E. J. (2013). The ethical foundations for CSR. In *CSR, Sustainability,*

- Ethics & Governance*. Berlin and Heidelberg: Springer.
- Galen, D., Brand, N., Boucherle, L., Davis, R., Do, N., El-Baz, B., Kimura, I., Wharton, K., & Lee, J. (2018). *Blockchain for social impact: Moving beyond the hype*.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Stanford Business. https://www.gsb.stanford.edu/sites/gsb/files/publication-pdf/study-blockchain-impact-moving-beyond-hype_0.pdf
- Glaser, F. (2017). Pervasive decentralisation of digital infrastructures : A framework for Blockchain enabled system and use case analysis. In *HICSS 2017 Proceedings* (1543-1552).
- Gupta, V. (2017). A brief history of blockchain. *Harvard Business Review*, 2-4.
- Iwu, C. G., Kapondoro, L., Twum-Darko, M., & Tengeh, R. (2015). Determinants of sustainability and organisational effectiveness in non-profit organisations. *Sustainability*, 7, 9560-9573.
- Hinings, C. R., Logue, D. M., & Zietsma, C. (2017). Fields,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governance. *The Sage handbook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 Hsieh, D. (2018). *IDHub Whitepaper v0. 5*. www.idhub.network/IDHub_whitepaper_v0.5.0_en.pdf
- Iansiti, M., & Lakhani, K. R. (2017). The truth about blockchain. *Harvard Business Review*, 95(1), 118-127.
- Jayasinghe, D., Cobourne, S., Markantonakis, K., Akram, R.N., & Mayes, K. (2017). Philanthropy on the Blockchain. In *Proceedings of the 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ecurity Theory and Practice*. Springer, New York, NY, USA. 25-38.
- Khan, L. M. (2016). Amazon's antitrust paradox. *Yale Law Journal*, 126, 710-805.
- Koka, B. R., & Prescott, J. E. (2002). Strategic alliances as social capital: A multidimensional 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9), 795-816.
- Lee, J., Seo, A., Kim, Y., & Jeong, J. (2018). Blockchain-Based One-Off Address System to Guarantee Transparency and Privacy for a Sustainable Donation Environment. *Sustainability*, 10, 4422.
- Lee, M., Adbi, A., & Singh, J. (2020). Categorical cognition and outcome efficiency in impact investing decis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1(1), 86-107.
- Lehr, D., & Lamb, P. (2018). Digital currencies and blockchain in the social sector.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https://ssir.org/articles/entry/digital_currencies_and_blockchain_in_the_social_sector1
- Logue, D., & Grimes, M. (2019). Platforms for the people: Enabling civic crowdfunding through the cultivation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forthcoming).
- Mulgan, G. (2010). Measuring social value.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8(3), 38-43.
- Nakamoto, S. (2008).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https://bitcoin.org/bitcoin.pdf>.
- Poorterman, A. (2017). Start Network in new partnership with Disberse to test revolutionary technology. *StartNetwork.com* (July 11).
<https://startnetwork.org/news-and-blogs/blockchain-experiment-humanitarian-aid>
- Scott, B. (2016). *How Can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Technology Play a Role in Building Social and Solidarity Financ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 Geneva, Switzerland, 2016. <http://www.unrisd.org/brett-scott>
- Shin, E. J., Kang, H. G., & Bae, K. (2020). A study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POs with blockchain technology. *Sustainability*, 12(15), 6158.
- Tantalo, C., & Priem, R. L. (2016). Value creation through stakeholder synerg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7(2), 314-329.
- Tapscott, D., & Tapscott, A. (2016a). The impact of the blockchain goes beyond financial services. *Harvard Business Review*, 10, 2-5.
- Tapscott, D., & Tapscott, A. (2016b). *Blockchain revolution: how the technology behind bitcoin is changing money, business, and the world*. Penguin.
- Tsai, W. (2000). Social capital, strategic relatedness and the formation of intraorganizational linkag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9), 925-939.
- Werbach, K. (2018). *The Blockchain and the New Architecture of Trust*. Mit Press.
- Zambrano, R., Seward, R. K., & Sayo, P. (2017). *Unpacking the Disruptive Potential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Ottawa, ON, Canada. <https://idl-bnc-idrc.dspacedirect.org/bitstream/handle/10625/56662/IDL-56662.pdf>
- Zhu, F., & Iansiti, M. (2012). Entry into platform based marke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3(1), 88-106.

On the Possibility of Social Value Exchange Using Blockchain Technology

Hyoung-Goo Kang* · Kyung-Hoon Chun** · Jon Jungbien Moon***

In this paper, we outline the possibility of a social value exchange (SOVEX) that can engage in trading that is of social value, and which can stimulate growth in the social economy sector. SOVEX is an envisaged online platform that could engage in trading and investments that are of social value. In order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s an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participants, SOVEX would operate on the basis of a peer to peer (P2P) system. It could also be called a system of social decentralized finance (DeFi) because it would use decentralized blockchain to store transaction data. It is possible to design the cryptoasset that would be issued by SOVEX so that it could reflect the value of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Then, moral hazard c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incentive structure created by the exchange, while information asymmetry would be mitigated through the transparent nature of blockchain technology. This paper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non-market capability of the exchange operator, since new legislation and communication on the part of SOVEX with various stakeholders to ensure productive regulations come about would be essential.

Key words: social value, blockchain, exchange, platform

* Associate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Hanyang University, hyoungkang@hanyang.ac.kr,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hchun@snu.ac.kr, Co-author

*** Professor,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Korea University, jonjmoon@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

■ 저자 소개

강형구(Hyoung-Goo Kang) 듀크대학교 푸쿠아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 소속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버지니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공군장교 근무 후 리먼브러더스 아시아본부 퀀트전략팀, 삼성자산운용, 국제통화기금, 액센츄어 등에서 재무와 금융에 관한 교육 및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하버드대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ics의 리서치 펠로우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주 연구 분야는 금융 혁신, 비기술적 혁신, 자원배분과 전략에 대한 프로세스, 행동재무 등이다.

천경훈(Kyung-Hoon Chun) 서울대학교에서 상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다년간 변호사 실무에도 종사했다. 『회사법』,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제』 등의 저서가 있고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 인수합병 등에 관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문정빈(Jon Jungbien Moon)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워튼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ESG 경영 전략, 글로벌 전략, 사회적가치와 지속가능경영 등의 주제로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경영학연구, 전략경영연구, 국제경영연구 등 다수의 국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다.